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시편 37:3-7

미국에는 사위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목욕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 목욕탕 입구에는 목욕탕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기만 하면 책임지겠지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시 37:5)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새해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합니다.

1. 무엇을 맡길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시 37:5) 길을 맡겨야 합니다. 길이란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다 아우릅니다. 길이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가정, 사업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에 등장합니다. 죄 없이 고난 받은 모습,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간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 맡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만났던 보디발이나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무엇을 요셉에게 맡겼습니까?

1)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창 39:4-5a) 배우자도 자녀도 다 맡겨야 합니다. 식구들을 자기 나름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가정을 주 앞에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맡겨야 합니다. 내 자녀를 다 맡겨야 합니다. 내가 손대면 내 작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자녀가 내 작품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2)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일부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보디발은 노예소년이었던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맡겼습니다.(창 39:5)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시간, 재물, 재능, 지위, 언어, 생각, 생명, 문제, 염려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다 쥐고, 일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 어떻게 맡길까?

1) 기도로 맡기라 -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b) 모든 문제는 기도제목입니다.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문제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문제만 바라보았을 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 너머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 하였습니다. 문제 너머를 보십시오. 해결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에게 구하십시오. 문제 너머 계신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2) **안식함으로 맡기라** -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조차 내가 벌어 살겠다고 하지 말고 안식함으로 하나님께 먹고 사는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안식 속에 내 모든 시간, 재물, 재능, 지위, 언어, 생각, 생명, 문제, 염려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시 37:7a)**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내가 설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기고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시다. 맡기고 자신은 안식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창 39:23a)** 새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맡기십시오.

3. 왜 맡길까?

1) **복 받기 위하여** - 맡기는 자는 복을 받습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 37:5)**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습시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기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창 39:5)** 맡기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은 그 때부터 하나님이 손보습시다. 하나님은 맡긴 것을 풍성케 하습시다.

2) **쉽고 일을 받기 위하여**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절한 일을 맡게 됩니다. 주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해 매일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가정과 소유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길, 자신도 알 수 없습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시다.

○ 나눔의 시간 ○

1. 2017년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2.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3. 왜 맡겨야 할까요?
4.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